절대 필요한 내겐 없는 것

(잠언 2:1~22)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절대 필요한 내겐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절대 필요한 내겐 없는 것'
한때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글귀가 여기저기서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에너지 절약 홍보 광고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태양이나 바람 혹은 물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고 또 다른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에서 35%로 증가시켰습니다. 35%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일본도 박차를 가해서 2010년에 1%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는 6%까지 와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는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의존도 95%의 에너지 빈국이 대체에너지 부국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놓고 보면 수입의존도가 100%여야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내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100% 자급자족을 달성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되어 처음으로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것은 곧 듣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성의 문제를 재판할 때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입니다. 지혜란 삶에서 만나는 사건이나 대상들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판단과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과 분별을 100% 의존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선악과의 존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인간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력은 판단을 수행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생각으로 만들고 생각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행하기 위한 판단력이 아닌 수용하기 위한 판단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판단력을 100%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인간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를 전부 대체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분별이라는 지혜만큼은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은화를 구하는 것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광부들이 목숨을 걸고 광산에 들어가서 값진 광물을 캐내는 심정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지혜를 구한 결과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곧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무엇인가 생김으로써 두려워지는 것은 일반적인 공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로써 지식 곧 앎을 뜻합니다. 여기서 '앎'이란 남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앎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6~8절에 나타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주어지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은 올바르고 적절하며 최선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과 연관된 모든 판단과 분별은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오류이고 죄가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에 사업에 대한 가장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야만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모든 판단과 분별은 오류입니다. 헝그리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분별만이 가장 올바르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위해서는 1~4절에서 말했듯이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은화를 구하듯이 구하고, 광부가 보화를 캐내듯이 캐내는 마음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상인이 은화를 바라는 마음은 강렬하고 절박합니다. 광부가 광산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려하는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이 세상일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최선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윤과 흑자를 추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족을 위한 헝그리 정신이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 당연한 행위가 미련한 것이고 악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장사를 하면서도 이윤과 흑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입더라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나라의 번영이나 부귀영화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을 구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든지 약해지든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은 앞서 말한 지혜의 속성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돈을 구하고 손님

을 부르려고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남대문시장에 가면 박수치고 소리를 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지혜를 불러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판사든 검사든 정치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수입의존도입니다. 내 안에서는 결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곧 내 안에는 지혜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조차도 지혜를 자급자족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자동적으로 이 상황은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돈이 하루 안 벌렸을 뿐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틀 삼일 반복되다보면 기도제목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삼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마친 후에 '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추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일지라도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판단을 거부해야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없는 지혜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4절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말씀처럼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적이 안 좋으면 자동적으로 판단이 생겨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명문대에 갈 수 없으면 평생 고생한다.'라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 경외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견딜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벌리는 상황, 자녀가 성적이 안 좋은 상황,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상황은 곧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물새는 틈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경외는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물샐틈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판단과 분별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했을까요?
형들의 배반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삶은 처참해졌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가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추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내가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모로 부리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판단을 하는 자는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신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행능력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아담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하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 없고 생각이 없으면 말과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건강이나 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과 분별이 없으면 성공도 형통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고 형통을 추구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돈이 있고 없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등등의 어마어마한 판단을 이미 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혜를 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수행능력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상황에서 급한 것은 판단을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얻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이 주어져야 합니다. 눈을 굴려서 눈덩이를 만들 듯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으로 생각을 굴려서 말과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스스로 판단과 분별이 불가능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판단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이지 스스로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4절의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

것을 찾으면'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절박함으로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내 속에는 판단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에 도달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만나는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겠음을 일천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맹세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 첫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일천 번이나 자신의 판단을 죽이고 일천 번이나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선봉장인 셈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이든 대상이든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단 하나도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매달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 경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일천 번제와 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경외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를 때에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귀의 꾐으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자동적 판단수행, 자동적 분별수행이 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하고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분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